

# 망설이지 않는 한비아식 '부끄러움 없는 삶'

글\_박사(북칼럼니스트)

책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되지만, 그렇지 않으려 애쓰지만, 저도 모르게 생기는 게 선입견 아니던가. 문득 정신 차리면 뽕뽕 말린 편견으로 눈길조차 주지 않는 책들이 서점의 매대에 블랙홀처럼 깔려 있다. 그 중의 하나가 '베스트셀러'. 지하철에서 만화책을 보며 깔깔거리는 건 아무렇지도 않지만 베스트셀러만큼은 아무래도 남들 눈앞에 내놓고 읽지 못하겠다. 꼭 읽어야 할 일이 어쩔 수 없이 생기면 책 포장지 씌울 궁리부터 하니, 요 알팍한 소갈 딱지는 영 고쳐질 생각을 안 한다.

그러나 곰곰 생각해보면 베스트셀러가 베스트셀러인 이유, 그것만큼 궁금한 것도 없다. 어떤 책들은 대충 짐작이 가기도 하지만 어떤 책들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들만의 이유를 뽕뽕 감추고 있다. 책은 내용의 함량과는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의 생명을 지니는 듯하다. 그러므로 베스트셀러라고 꼭 그만큼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그와 마찬가지로, 베스트셀러라고 함량이 떨어지리라는 선입견도 무척 곤란하다.

원래 지명도 높은 작가이기는 했지만, 한비아는 일곱 번째 책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를 통해 명실상부 단단한 베스트셀러 작가의 반열에 올랐다. 시원시원한 어투, 신기하고 흥분되는 경험담이 어우러진 한비아의 책은 여행기면 여행기, 유학기면 유

학기, 활동기면 활동기 장르를 가리지 않고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 중에서도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의 인기는 경이로울 정도다. 지도 안을 살살이, 또 날날이 누비던 작가가 드디어 지도 밖으로! 그녀는 도대체 어디까지 가려는 것일까?

이 책이 인기를 끈 첫 번째 이유는 당연히 한비아의 이름이 가지는 힘이다. '한비아'라는 이름은 이제 브랜드, 혹은 신드롬이라 할 만하다. 오지여행가라는 직업 같지 않은 직업으로 하고 싶은 일도 마음껏 하고 돈도 버는 사람. 하는 모험마다 족족 성공하는 듯 보이는 신기한 사람. 책으로도 전해지는 넉넉한 에너지를 사람들은 아낌없이 사서 읽고 전해 받는다.

천하의 한비아 또한 콘셉트가 '여행'이 아니었다면 반쪽의 인기만을 누렸을 것이다. 여행은 쳇바퀴처럼 폐곡선을 그리는 현실을 달달달달 돌리며 살아야 하는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게 거의 유일한 탈출구다. 실제로 여행을 떠나게 되어 가이드북을 산다면 더 좋겠지만, 계획을 세울 엄두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여행기를 읽으며 대리만족을 구한다.

어차피 대리만족일 바에야 남들 다 가는 곳을 상식적으로 밟고 오는 여행기보다는 남들 안 가보는 곳을 헤집고 뒤집는 여행이 훨씬 구미가 당기지 않겠는가. 더구나 매일매일 급속도로 여행자들의 발길에 닿는 지구 곳곳의 여행지들을 생각하면, 덜 알려졌던 때의 신기한 느낌을 찾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출간된 지 10년 된 그녀의 다른 책들이 아직도, 아니 오히려 인기가 있는 이유도 그러고 보면 꽤 설득력 있다.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는 그러한 한비아 특유의 여행담에 일획을 더한다. 가기 힘든 신기한 나라의 풍광은 여전하지만, 그것은 이미 목적 없는 여행자의 시선으로 본 풍광이 아니다. 월

● 이 글을 쓴 박사는 북칼럼니스트, 문화칼럼니스트 등으로 전방위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만화와 영화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명석과 함께 복합문화 프로젝트 사탕발림(www.sugarspray.com)을 운영하고 있다. 공저로 《고양이러서 다행이야》 《여행자의 로망백서》 등이 있다. (baxa@sugarspray.com.)

드비전의 긴급구호팀장으로 활동하면서 본 세계각지의 모습은 또 한 번 뒤집힌 이면을 보여준다.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가 올 하반기 출판계의 키워드로 뽑은 여섯 가지 중 하나인 '임파워먼트'는 자신 속에 내재된 역량을 끌어내는 노력을 의미하는 말이다. 사람들은 책을 선택할 때만 이나마 가족 안에 안주하고 삶을 지키기에 급급하기보다 다른 사람과 더 넓은 사회를 위해 나눔과 상생을 추구하는 삶을 지향한다. 지구 반대편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과 전쟁과 내전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을 보여주고 그들을 위해 벌이는 노력을 소개하며 그들을 도울 길을 열어주는 한비아의 이 책은 올해 베스트셀러의 경향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무엇보다 사람들을 가장 매혹시키는 것은 한비아의 '부끄러움 없는 삶'의 모습이다. 물론 그녀의 부끄러움 없는 모습은 데레사 수녀를 비롯한 성자들의 부끄러움 없는 삶과는 아주 다르다. '하늘을 우러러보아', 혹은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 있게'라는 의미의 부끄러움 없음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부끄러움 없는 삶이다.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는 데 있어 망설이거나 거리끼지 않고 곧장 직진코스로 내달리는 삶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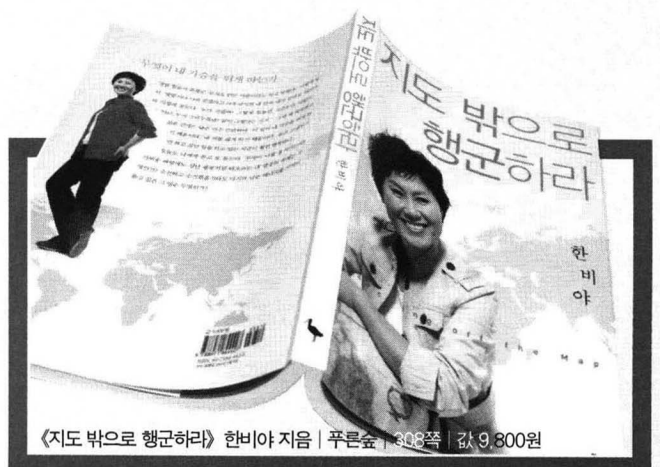
그녀가 스스로 한비아식 작전이라고 부르는 "0.1퍼센트의 가능성만 보여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물귀신 작전과, 이것이 안 되면 뛰어내리고 말겠다는 벼랑 끝 작전(99p)"은 보는 사람을 당황하게 하고 불쾌하게 만들기까지 한다. "우리 단체를 비롯한 국제 구호단체들은 초기 긴급구호현장에 비숙련, 비전문 자원봉사자 파견을 엄격히 금하고 있다(298p)"고 소개하면서도 경력도 전문능력도 전혀 없이 첫 파견지로 아프가니스탄을 가겠다고 떠드는 모습, 7년간의 오지여행 경험을 유사경력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매달려 10퍼센트밖에 없는 가능성을 쟁취하는 모습은 내심 불편하다.

뿐이라.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에 덜컥 겁이 나 월드비전의 규칙을 어기고 아이 엄마에게 몰래 돈을 쥐어준 뒤 "그것 봐. 이렇게 하길 잘했잖아. 현장규칙을 어긴 벌을 받아야 한다면 그 벌, 달게 받겠다.(74p)"고 흡족해하는 한국아줌마스러운 마이페이스는 페이지 곳곳에서 튀어나와 고개를 가우똥거리게 한다. '눈 앞에서 기아로 죽어가는 아이를 보지 못해서 그렇다'고 말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 한비야가 그토록 체화하고 싶어하고 몸바치고 싶어하는 국제구호단체의 규칙이라면 분명 그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보다 더 우위에 '자신의 규칙'을 두는 모습은 아무리 잘 보려 해도 곱게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책을 읽어나가면서, 그러한 막무가내 성정이 하나

의 일관된 흐름 위에 놓여 있음을 발견한다. 그 흐름의 장점은 위에서 본 단점들을 덮고도 남음이 있다. 진정으로 이 일을 하고 싶어하며, 누구에게서나 장점을 발견하고 기쁘게 배우는 모습은 그녀의 충분한 가능성을 짐작하게 한다. 악조건 속에서 좋은 면을 발견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음으로든 양으로든 배우려고 애쓰며 그렇게 얻은 자양분을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분야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자세.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수미일관하게 흐르는 건강한 에너지는 저자에 대한 신뢰를 이끌어낸다. 한비야가 수많은 사람들의 역할모델을 하는 이유를 알겠다. 위대해서가 아니라, 울타리 없는 범인이기에 가능한 그녀만의 매력이다. 조금 쫓 잘난척하고 공주병스러운 오해를 해도 웃으며 넘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은 그녀의 초롱초롱한 눈이 또렷이 한 곳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감동해서 당장 팔 걷고 나서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 책이 베스트셀러인 것이 팔레스타인과 국제적 기아난민들에게는 다행이지 싶다. 직접적으로 현금이 가지는 않더라도 지구의 저편에는 상상하지 못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해준 것만으로도 어디인가. 그런 의미에서, 한비야는 사람들이 가보지 않은 곳을 먼저 가보고 그곳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놓는 '여행가'로서의 역할에 투철한 사람이다. 그녀의 발길이 닿는 지도 안과 지도 밖의 모든 곳들을 특유의 생생한 어투로 실황중계해 주기를. 그녀의 열정과 에너지가 향하는 곳으로 독자들을 막무가내로 끌고 가주시길. 지금처럼, 앞으로도. **한비아**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한비아 지음 | 푸른숲 | 308쪽 | 값 9,800원